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법 —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함

2/12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딤후 1:3-5, 18-19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18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를 두고 했던 예언에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하였습니다.

엢 4:15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딤후 4:3-4

3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4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꾸며 낸 이야기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급한 것은 전적으로 교회가 하락해 가는 시기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요점이 있다. 첫 번째로, ...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할 때,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여러 종류의 실수로부터 보호받는다. ... 오늘날 기독교계의 주된 문제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 있다. ... 두 번째 요점은 ... 교회 전체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것이다. (딤후 3:15). 인도하는 이들만이 아닌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배우기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진리를 붙드는 것은 교회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을 알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두 가지 통제 원칙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 8 장, 929-93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처신하려면, 우리는 건강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4 장 3 절과 4 절은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꾸며 낸 이야기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는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견디는 것을 말하는 데 쓰인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가르침이 그들이 견뎌야 하는 것이 되었다. ... 이와 같은 이들은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가르침들을 듣기를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려운 귀에 따라서가 아니라 건강한 가르침에 따라서 처신해야 한다.

가르침이 지루한지 재미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오직 그것이 건강한 가르침인지 아닌지만을 고려해야 한다. ... 교회들 안에 존재하는 가르침은 반드시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건강한 가르침을 주의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처신에 관한 또 다른 통제하는 원칙이다. 바울은 ‘건강한 가르침’과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말’이라는 용어들을 디모데와 디도에 보내는 서신에서 일곱 차례 사용했다(딤후 1:10, 6:3, 딤후 1:13, 4:3, 딤후 1:9, 2:1, 8). 그는 교회생활이 하락할 때에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지루해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더 좋아할 것임을 알았다. ...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선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건강한 가르침에 따라서 처신해야 한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면 거절해야 한다. 합당한 가르침은 우리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이 건강한가의 문제이다.

디모데전서 1 장 3 절과 4 절에서 바울은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이코노미(economy)’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화한 것으로서, 그 헬라어 단어는 분배, 청지기 직분, 또는 무언가를 분배하기 위한 행정을 의미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 8장, 935-936, 9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 8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2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생활, 2장

2/13 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16

16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딤후 6:11, 3, 5-6

1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 추구하십시오.

3 어떤 사람이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과 경건에 따라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5 또 생각이 썩어 진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6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딤후 3:5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딤후 1:1

1 하나님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골 1:15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 3:10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아홉 번 사용된다(딤후 2:2, 3:16, 4:7-8, 6:3, 5-6, 11, 딤후 3:5). 또한 ‘경건한(godly)’이라는 단어가 두 번(딤후 2:10, 딤후 3:12), ‘경건하지 않은 것(ungodliness)’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된다(딤후 2:16). ... 그러나 오직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합당한 정의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혹은 육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안다. ...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한다. 16절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혹은 육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경건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임을 계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이 절이 그리스도께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가 16절의 마지막 구이므로, 이 절은 분명 그리스도의 승천뿐 아니라 교회의 휴거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시기 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요소들, 5장, 205-20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머리가 어떠하면 몸도 분명 그러하다. 머리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도 분명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은 교회가 합당하게 모일 때, 믿지 않는 이가 들어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가 합당하게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경건은 실지적이고도 살아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집회에 올 때, 이 집회를 매우 비밀스럽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외치며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종종 그들이 집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곧 경건의 비밀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다. ... 이러한 왕래는 회로 속에 흐르는 전류에 비유될 수 있다. 전류란 다름 아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전기이다. 우리 가운데와 우리 안에는 신성한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것은 경건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명령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다(딤후 1:3).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들어오심과 나가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서는 안 된다. ...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야 한다.

갓 구원받은 젊은 자매는 적합한 머리 길이에 대해 다른 자매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질문받은 자매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특정한 길이의 머리를 기르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는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 어떤 질문이 제기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오직 하나의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 즉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경건으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경륜이 우리의 교통의 유일한 주제여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요소들, 5장, 206-21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요소들, 5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2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 4장

2/14 수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2

2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일 3:2

2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2:28

28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 7:29

29 나는 그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히 1:3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침실에 걸어 놓는 그림은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에서 경건에 관심을 두는지의 여부를 보여 준다. 우리가 고른 그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동일한 원칙을 일상생활의 수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다. ... 이것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침실에 어떤 그림을 걸어 놓은 채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다면, 즉시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그림을 버려야 한다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다. ...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으므로, 우리 속에서 그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것이 경건이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요소들, 5장, 210-21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술집에 간다면 다음 날 아침에 기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술집에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적인 규제가 아니라 내적인 실재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안에는 삼일 하나님의 실재가 있다. 이것이 경건이다.

어떤 형제가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안에서 그 영의 기름바름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넥타이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넥타이를 매는 것은 경건, 즉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는 것일 리가 없다. 이러한 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나의 부담은 우리가 뭘 수 있는 넥타이의 종류나 다른 어떤 것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다른 사람에게 경건의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느슨한 말이나 한담이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여 그러한 말을 거절해야 한다. 그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인상을 전혀 갖지 못한다.

심지어 작은 일들에서도 우리는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 어떤 신발을 살지를 결정할 때, 먼저 모양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집회에 가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일들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매우 경건한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 1800년대 말에 유명한 한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한번은 새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그는 그 집에 모든 것을 배치하고 집을 장식한 후에 아버지를 초대하여 자신의 집을 보여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모든 방을 둘러본 후에, 다 좋기는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의 집에 진열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의 인상을 강하게 남겨야 한다. 경건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디모데전서 3 장 16 절에서 '나타나셨고'라는 말은 경건이 외적인 표현을 가진 내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려면, 우리의 생활 전체에서 경건이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고 표현하고 행하고 입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실행한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가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경건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를 분별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요소들, 5 장, 211-2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디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2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두 가지 큰 비밀, 5 장

2/15 목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4:7-8

7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8 신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에 대해 약속해 줍니다.

엡 1:9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엡 2:22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엡 3:3-4, 9

3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엡 5:32

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생활 안에서 처신하는 법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경건의 증거를 합당하게 나타내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이 합법적이거나 옳은가의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건의 표현 곧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형제들은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갈지도 모른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교회생활 안에는 어떤

올법적인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 모든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분열을 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교회를 올바른 노선안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이 있고 강해져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경건해야 하고 느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 8장, 934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그분의 가정행정, 곧 그분의 계획이다. 그분의 분배는 경건의 생활을 산출한다. 사실상 경건은 신성한 분배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분배에서 산출되는 경건한 생활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의 분배에서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이 없는 그릇들 안으로 분배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 약국에서 약들은 생명이 없는 병들 안으로 ‘분배’되는데, 그 병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취향과 선택과 선호와 느낌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의지 등을 가진 살아 있는 그릇들인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강하게 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없다. 우리의 영은 받아들이고 보유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입구이다.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릴 때 우리의 온 존재가 열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 주실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하나님의

분배는 우리의 동역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걷는 것이 우리의 발과 다리를 훈련하는 것이듯이,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들과 개인적인 사안들에 관심하여 그것들이 목표가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접촉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도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신성한 분배가 즉시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건의 생활이다.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 것에서 나온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충분히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18장, 241-242쪽)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틀에 박힌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참되게 주님을 만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 주님.”이라고 말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오,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님을 만진다. 이것이 영을 훈련하는 습관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도록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 ...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 강한 의지가 있다. 그들은 훈련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강요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강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 보자. ... 그때 여러분이 자신의 영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혼 전체가 가장 우세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럴 때 혼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압도할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을 억누를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은 심하게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강요해야 한다.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거나 사용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강요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장, 97-98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개정판, 17-18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1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건강한 말씀, 5장*

2/16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2:15

15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분께서는 영이 넉넉하신데 어째서 하나이나?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누구도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마 16:25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롬 9:1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는 것은

생각은 혼의 큰 부분이며, 혼은 우리의 외적인 육신과 우리의 내적인 영 사이에 있다. ...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매우 '번잡스럽다'. ... 만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깐 사이에도 상상 속에서 전 세계를 헤매고 다닐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영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노래하거나,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을 말해 낼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죄를 범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영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는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만 있을 때 그들은 자유롭게 다른 이들에 관해 한담을 하고 교회에 관해 부정적인 말들을 할 수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기를 배워야 한다. 생각을

육체에 두지 말고 영에 두라.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죽음이지만, 영에 두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10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4 장 12 절에서는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12 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눌 수 있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매우 자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속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악하다는 분별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생각 뒤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것은 혼과 영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원수의 계략은 언제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혼합시키는 것이다. ... 그러한 혼합이 있을 때마다, 영은 패배하고 혼은 승리한다.

한 형제가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형제에 대해 말하려고 하기 전에, 그는 "이것이 나의 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혼에 속한 것인가?" 하고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혼에 속했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한담이나 비평일 것이다. 만일 그것이 영에 속했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어떤 것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는 반드시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고, 생각을 영에 두며, 영과 혼을 분별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따라야 하며, 모든 일에서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서 8 장 4 절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영에 속하지 않고 혼에 속한 것을 항상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영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쓰고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혼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몹시 뒤섞여 있는 상황들이 꽤 자주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영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너무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너무 곧바로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나는 편지에 답장하면서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다. 때때로 나는 편지를 쓴 후에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였다가 부친다. 그 다음 날에 그 편지에 추가해야 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거나 무언가 잘못 썼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는 항상 전쟁이 있다. 더욱이 우리 내부에는 영과 육체 사이의 전쟁이 있으며, 영과 혼 사이에는 심지어 더 많은 전쟁이 있다. ... 우리는 ...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을 항상 분별해야 한다. 만일 어떤 것이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거나 행동에 옮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104-10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1권,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함, 3장;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63*

2/17 토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6-7

6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엡 2:20-21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엡 4:12-16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전 14:4, 12

4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12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영들에 대하여 열정적인 사람들이니만큼,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뛰어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우리는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체조를 연습하듯이 훈련하는 것과 같다. '경건에 이르도록'은 경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오늘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시다(고후 3:17, 롬 8:9-10, 딤후 4:22).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 장 7 절에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체조 연습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 장 16 절을 통해 경건의 비밀, 곧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안다. 내주하시는 영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목표, 즉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내적으로 양육이 필요하고 외적으로 경건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양육받아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76-7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려면 여러분은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디모데후서 1 장 6 절과 7 절을 썼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 위치하며, 이 영은 혼의 세 부분, 즉 의지와 감정과 생각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다. 능력은 우리의 의지에 속한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속한 것이며, 맑은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부분에 속한 영을 주셨다. 우리의 의지는 강해야 즉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은 다정해야 즉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은 분명해야 즉 맑은 생각으로 충만해야 한다.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의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영은 강력한 의지만이 아니라 또한 다정한 감정과 맑은 생각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흐릿해서는 안 되고, 매우 분명하고 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에게는 이것에 대한 계시뿐 아니라 체험도 있었다. ... 디모데전서 1 장 6 절과 7 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하기 위한 자본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자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은 그분의 정하심에 따른 것으로, 우리 의지에 속한 능력과 우리 감정에 속한 사랑과 우리 생각에 속한 맑은 정신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세 조력자가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우리를 고양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영을 훈련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 다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달릴 수 있겠는가? ...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대한 예금이 들어 있는 계좌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청명한 하늘과 더불어 능력과 사랑과 맑은 생각이 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주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넉넉히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의 하늘은 수정처럼 맑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역량이다. 우리는 "나는 강하다! 나는 사랑이 많다! 나의 생각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채질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불이 더욱더 타오를 것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100-101, 10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8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2권, 서신서들에 있는 사람의 영과 함께하시는 신성한 영, 10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요소들, 5장

2/18 주일

아침의 누림

딤후전 1:1-2, 4-6, 11-17

1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빛나감으로써 헛된 이야기에 빠져

11 이 건강한 가르침은 나에게 맡겨진,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13 전에 나는 모독하는 사람이요, 박해하는 사람이요,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1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16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501 (英) 영광스런 사랑의 주 (中:382)

1 영광스런 사랑의 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영원무궁한 한계 떠나서 시간에 제한되었네 (후렴)

오-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현 측량할 수 없는 풍성

하나님과 사람 연합해 내 안에서 내 만유 돼.

2 하나님의 총만인 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전엔 육체 돼 구속 이루고 지금은 내 영에 계셔

3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 풍성 영 안에 있네 그 영 내 안에 안식하시며 내 생활의 실재 되네

4 주의 영은 생명으로 내게 살아 있는 말씀 돼 말씀 받을 때 그 영 접촉해 내 생명 공급 되시네

5 영 안에 주 바라볼 때 거울처럼 영광 반사해 나는 변화돼 주의 형상 돼 주 나를 통해 나타나

6 이와 같은 생활만이 성결함을 이룰 수 있네 이런 생활만 승리 이루네 영광의 생명 나타내

7 이로 인해 주의 영이 내 전체를 적셔주시니 옛사람에서 구출되어서 온 성도와 주 거처 돼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The All-inclusive Christ, chs. 15-16